

柳宗元의 游記研究

洪 承 直

〈目 次〉

- | | |
|-------------------|-----------------|
| I. 서 論 | 3. '情'과 '景'의 융합 |
| II. 柳宗元 游記의 성립 | 4. 청각적 표현의 효과 |
| III. 游記의 문학적 성취 | 5. 寓意 |
| | IV. 결 論 |
| 1. '曠濶'과 '深奧'의 결합 | 참고문헌 |
| 2. 회화적 묘사의 극치 | |

I. 서 論

현재 중국에서는 역대 문인의 뛰어난 游記를 선별하여 편찬하는 작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일차로 自國의 문화유산과 명승 山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에게 自國의 풍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편찬되는 選集에 수록된 游記는 대부분 중국의 명승과 고적에 감동하고 그것들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 대국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游記는 쓰여졌다.

古代의 游記는 주로 貶謫되어 먼 길을 떠나는 官吏 또는 기나긴 여행을 일삼는 詩人墨客들이 창작한 것이다. 그 내용도 감탄과 찬양 또는 선전 일변도가 아니라 멀고 고통스런 여행 도중에 문득 마주친 어떤 산천 초목에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는 수법으로 묘사하므로써 문학적 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 抒情과 敘景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唐代 柳宗元의 游記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柳宗元의 游記는 『史記』·『水經注』 등에서 발휘된 山水와 풍물의 묘사 기법을 바탕으로 抒情的 표현 기법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 游記 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游記가 ‘記’라는 상식적이고 특성이 없는 문체 분류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문체로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柳宗元 游記의 문학적 성취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柳宗元 游記의 성립

우선 文體의 측면에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游記의 창작은 柳宗元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游記가 ‘記’라는 문체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문체로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柳宗元 본인이 직접 ‘游記’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은 없다. 柳宗元의 詩文 全篇을 수록한 『柳河東全集』을 보면 卷 26에서 卷 29까지 「……記」라고 題한 작품 36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卷 27에서 卷 29까지 26편의 작품을 游記로 분류할 수 있다¹⁾. 游記는 처음부터 그 명칭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記라는 문체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記’란 무엇인가? 고대 문체의 기원과 발전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밝힌 徐師曾에 이르기까지도 記에 대한 언급은 극히 단편적이며 추상적이다²⁾. 또한 古文의 문체를 同名異體와 異名同體 문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古文 분류의 표본을 제시한 『古文辭類纂』과 『經史百家雜抄』에서도 記는 ‘雜記類’로 분류했다³⁾. 이와 같이 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단편적인 이유는 記라는 문체의 포괄성과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吳訥이 “記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두는 것으로, 공사가 끝난 후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고 누가 주관했는가를 기록해두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⁴⁾라고 간명하게 정의한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1) 『柳河東全集』, 卷 28, 『永州鐵爐步志』만이 예외로 「……志」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志’와 ‘記’는 ‘기록’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본다. 『柳河東全集』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卷數와 篇名만을 밝힌다.)

즉 記라는 문체의 본질은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수식과 정의를 내리든 '기록'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문체의 측면에서 볼 때 柳宗元の 游記는 위와 같은 상식적인 또는 편의적인 분류에 속하는 記에서 '游記'라는 하나의 독특한 형식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록'의 일종으로 이해되거나 '雜記'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는 독특한 풍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柳宗元の 游記 창작은 그가 '永貞革新政治'에 참여했다가 실각하여 僻地인 永州의 員外司馬로 貶謫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⁶⁾. 柳宗元은 唐 德宗 貞元 9년(793년) 21세 때 進士에 급제하여 順宗 永貞元年(805년) 33세 때 永州司馬로 貶謫되기까지 약 13년간 중앙 조정 또는 長安 근처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 進士 급제 이전에도 柳宗元은

2) 徐師曾은 「文體明辨」에서 '記'를 “禹貢·顧命이 記의 시조인데, 記라는 명칭은 「戴記」·「學記」에서 시작되었다. 그후 楊雄이 「蜀記」를 지었는데 「文選」에서 그 체례를 신지 않았고 유허이 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漢魏 이전에는 작자가 아주 적었음을 알 수 있다. 記는 唐代에 들어와 비로소 왕성하게 창작되기 시작했다. (禹貢·顧命乃記之祖, 而記之名, 則昉於「戴記」·「學記」諸篇. 厥後楊雄作「蜀記」, 而「文選」不列其類, 劉勰不著其說, 則知漢魏以前, 作者尙少, 其盛自唐始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3) 「古文辭類纂」에서 古文을 '論辨'·'序跋'·'奏議'·'書牘'·'贈序'·'詔令'·'傳狀'·'碑誌'·'雜記'·'箴銘'·'頌贊'·'辭賦'·'哀祭'의 十三類로 분류한 이후 이는 古文 분류 방식의 표본으로 변함없이 인용되었으며, 「經史百家雜抄」도 '贈序'를 '序跋'로 같이 분류한 이외에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다.

4) 吳訥, 「文章辨體」: “大抵記者, 蓋所以備不忘. 如記營建, 當記月日之久近, 工費之多少, 主佐之姓名, 敘事之後, 略作議論, 以結之, 此爲正體.”

5) 현대적 개념으로 문체를 정리한 金振邦의 「文章體裁辭典」에서는 특징과 용도에 따라 散文을 크게 '記敘文'·'議論文'·'說明文'·'應用文'으로 나누고, '記'는 '記敘文'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記敘文'은 “記敘를 위주로 사람을 기록하고(記人)·사건을 서술하고(敘事)·경치를 묘사하고(寫景)·사물을 형용하는(狀物) 것을 통하여 사회 생활을 반영하고 작자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간·장소·인물·사건·원인·결과 등의 여섯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종류로는 역사 기록·山水記·인물기·필기·일기·연표·세보 그리고 현대의 소식지·통신문·보고문·참관기·회고록·전기·游記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長安에서 멀리 떠나 생활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33년의 시기를 ‘長安 시기’로 구분하고, 이후 憲宗 元和 14년(819년) 47세 때 柳州에서 타계하기까지 14년의 시기를 ‘貶謫 시기’로 구분한다. 游記는 柳宗元이 ‘貶謫 시기’에 창작한 記이다. 따라서 柳宗元의 記 중에서 游記를 제외한 나머지 10편의 記는 ‘長安 시기’에 창작한 것이다. ‘長安 시기’의 記는 柳宗元이 秘書省校書郎·集賢殿書院正字·藍田尉·監察御史裏行·尙書禮部員外郎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출세의 길을 달리고 문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에 쓰여진 것들이다. 모두 관청의 벽이나 문에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당 관직의 내력·역할·임무 등을 서술하거나 그 관직을 거쳐 간 어느 인물의 공적을 서술함으로써 관리에게 교훈과 귀감을 보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문장의 필법도 어떤 수사적 기교나 예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록을 위한 記’요 ‘備忘을 위한 記’인 셈이다.

永州司馬로 貶謫된 이후 柳宗元은 실의와 좌절의 나날을 보냈다. 司馬라는 직책은 閑職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로 부근의 山川을 찾아다니며 술로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산천 경계에 심취하여 심신을 달래기도 하면서 그때그때의 감회를 글로 옮겨놓았다. 그중에서 山水를 대상으로 묘사한 작품이 곧 游記이다. 永州와 柳州의 山水는 그 빼어난 절경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거의 미치지 않는 僻地에 위치했기 때문에 종종 柳宗元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어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경치를 묘사함이 탁월하고 감정을 기탁함이 절묘하다’는 것이 柳宗元의 游記가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Ⅲ. 游記의 문학적 성취

1. ‘曠瀾’과 ‘深奧’의 결합

游記를 한 마디로 ‘어떤 경치를 유람한 기록’이라 정의한다면 거기

- 6) ‘永貞革新政治’에 대해서는 拙稿「柳宗元 寓言文의 諷刺性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6. 12.) 참조. 사실 이 사건은 游記 뿐만 아니라 柳宗元의 인생 및 文學 전반에 걸쳐 결정적 전기를 제공한 중대한 사건이다.

에는 기록하는 주체 즉 작자와 기록되는 객체 즉 경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 사이를 연결하는 작자의 감흥이 곧 游記의 본질로, 이 작자의 감흥이 다시 독자에게 감흥을 전달해 줌으로써 游記의 성격이 드러나고 규정된다.

柳宗元은 游記의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游記의 문학적 성취를 살펴보려면 먼저 柳宗元은 과연 어떤 경치를 보고 감흥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싶어했는가 즉 柳宗元이 예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柳宗元 자신이 유람을 하기에 적합한 경치 즉 游記를 쓸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밝힌 적이 있다.

유람하기에 적합한 경치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曠의 美를 갖추고 있는 것과 奧의 美를 갖추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일 뿐이다⁷⁾.

유람하기에 가장 적절한 경치는 ‘曠의 美’와 ‘奧의 美’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曠’과 ‘奧’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그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하여 柳宗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지세가 험하고 가파른 것을 누르고 막히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끝없이 넓고 길게 펼쳐져 있다면 曠에 적합하고, 구릉과 언덕에 부딪치며 관목과 풀숲의 밀을 지나 굽이쳐 흘러서 만난다면 奧에 적합하다⁸⁾.

‘험하고 가파른 것을 누르고 막히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끝없이 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은 山의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이 대표적이며, ‘구릉과 언덕에 부딪치며 관목과 풀숲의 밀을 지나 굽이쳐 흘러서 만나는’ 것은 그 산 밑에서 여기저기 골짜기로 흐르는 계곡과 연못의 모습이다. 즉 ‘曠’과 ‘奧’를 우리가 알기 쉽게 분다면 ‘曠’은 넓은 시야·큰 규모·조합의 형태를 띤 ‘曠濶의 美’라면 ‘奧’는 작은 시야·작은 규모·독립의 형태를 띤 ‘深奧의 美’로 볼 수 있다.

7) 卷 28, 「永州龍興寺東丘記」: “游之適, 大率有二. 曠如也, 奧如也, 如斯而已.”

8) 앞과 같음: “其地之凌沮峭, 出幽鬱, 蓊廓悠長, 則於曠宜; 抵丘徑, 伏灌莽, 迫遽廻台, 則於奧宜.”

柳宗元은 ‘曠瀾의 美’와 ‘深奧의 美’는 각각 다른 대상에서 느끼는 美的 感覺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치는 조화를 이루면서 두 가지를 겸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游記는 대상이 겸비하고 있는 두 가지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서술 방식도 ‘曠’의 특징과 ‘奧’의 특징을 교차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⁹⁾.

柳宗元의 游記의 佳作 여덟 편을 흔히 ‘永州八記’라고 하는데 「始得西山宴游記」는 그 첫번째 작품으로, 여덟 편 游記의 序文 격에 해당한다. 柳宗元이 西山의 미관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역시 ‘曠瀾의 美’와 ‘深奧의 美’를 교대로 좇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죄인이 되어 이 永州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가 틈이 나면 유유히 거닐면서 천천히 노니는데, 동행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깊은 숲에 들어가서, ……¹⁰⁾

여기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上高山)은 曠瀾의 美를 찾는 것이요, 깊은 숲에 들어가는 것(入深林)은 深奧의 美를 찾는 것이다.

…… 우거진 나무를 쳐내고 무성한 풀잎을 태우며 山의 높은 곳까지 올라 멈춰다가, 기어서 정상에 올라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쉬고 있노라면, 부근 몇 州의 대지가 모두 내가 걸터앉은 자리 밑에 깔려 있고, 높게 낮게 드리워진 山勢와 地勢는 깊은 숲인 듯 웅덩이인 듯 개똥뚱갈기도 하도, 구멍갈기도 하게, 한 자 한 치의 눈 앞에 천 리의 광경이 차곡차곡 숨김없이 쌓여, 푸른 빛이 에워싸고 하얀 빛이 수를 놓아 밖으로 하늘과 나란히 한 것이 사방을 둘러봐도 한결같다. ……¹¹⁾

이와 같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 세상 만물을 한 치의 시야 안에 하 나도 빠짐없이 굽어보는 것이야말로 ‘曠瀾의 美’의 극치를 얻은 것이다. 이런 광경에서 柳宗元이 일시적이거나 얻은 것은 마음의 평화요 세상의 번다한 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悠悠하게 顯氣와 함께 하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洋洋히 造物主와 함께 노닐듯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 잔을 당겨 술을 가득 채워 마음껏

9) 朱世英·郭景春, 「唐宋八大家散文技法」, 68쪽-69쪽 참조.

10) 卷 29, 「始得西山宴游記」: “自余爲罪人, 居是州, 恒惴惴, 其隙也, 則施施而行, 漫漫而游, 日與其徒, 上高山, 入深林, ……”

취하니, 해가 들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슴푸레하게 저녁빛이 멀리서 다가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나지 않고, 마음이 엉기고 형체가 녹아서 만물의 조화와 하나로 합한다¹¹⁾.

悠悠히 혹은 洋洋히 顯氣 또는 造物主와 끝없이 노니는 이런 경지는 호연지기를 키워 억울하고 고통스런 현실 생활을 벗어난 모습이다. 이와 같이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서도 ‘曠濶의 美’는 柳宗元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曠濶의 美’를 山의 정상에서 바라본 넓은 시야의 모습이나 山과 山 또는 山과 주위 경관이 어우러진 전체적인 모습에서 찾는다면 ‘深奧의 美’는 그 山이 담고 있는 갖가지 풍경 즉 연못· 시내· 수석· 바위· 수목· 화초· 새· 물고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鈇鉏潭은 西山의 서쪽에 있다. 그 근원은 처음에 菴水가 남쪽으로부터 세 차계 흘러와 산의 들에 부딪쳐 동쪽으로 굽이쳐 흘러온 것이다. 그 상류와 하류의 물살이 지세어 굽이쳐 흐를수록 더욱더 사나와져 양쪽 물가를 감아서, 폭은 넓고 가운데는 깊다. 흐르다가 바위가 있는 곳에 이르면 멈추는데 흐르는 물거품은 둥근 바퀴 모양을 이룬다. 그런 후에 천천히 흘러 그 맑고 고요한 것이 또한 十畝 남짓 되는데 나무가 연못 둘레를 두르고 있고 샘이 걸려 있다¹²⁾.

처음 西山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후 계속하여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鈇鉏潭의 ‘深奧의 美’의 모습이다. 물이 세차게 흘러 돌과 부딪치고, 다시 굽이쳐 흘러 물가를 짝는가 했더니, 더욱고 넓고 깊은 호수를 이루면서 맑고 평온한 모습을 이루는 과정의 묘사는 독자까지 심취의 경지에 빠져들게 한다. 曠濶의 美를

11) 앞과 같음: “……斫榛莽, 焚茅筏, 窮山之高而止, 攀援而登, 箕踞而傲, 則凡數州之土壤, 皆在 席之下, 其高下之勢, 巖然娃然, 若垤若穴, 尺寸千里, 瓊壑梁積, 莫得 隱, 青瞭白, 外與天際, 四望如一. ……”

12) 앞과 같음: “悠悠乎與顯氣俱, 而莫得其涯, 洋洋乎與造物者遊, 而不知其所窮. 引觴滿酌, 頽然就醉, 不知日之入, 蒼然暮色, 自遠而至, 至無所見, 而猶不欲歸, 心凝形釋, 與萬化冥合.”

통하여 길러지는 호연지기와 더불어 이런 심취의 경지 또한 柳宗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의 번다한 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꺼이 이 夷族의 땅에 살면서 고향땅을 잊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 연못이 아니겠는가?¹³⁾

물론 이러한 自述의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 어떤 반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 경치를 통하여 柳宗元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曠瀾의 美’를 통하여 길러지는 호연지기와 ‘深奧의 美’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심취의 경지는 柳宗元이 억울하고 고통스런 심정을 가라앉혀 마음의 평온을 얻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런 까닭에 柳宗元은 貶謫 시기 전체를 통하여 이런 효용을 제공하는 名勝 山水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경관의 예술적 표현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2. 회화적 묘사의 극치

柳宗元이 游記에서 주로 묘사한 것은 시내 또는 연못과 그 주위 경관을 이룬 산이나 바위 등이다. 柳宗元 자신이 말했듯이 이것들은 모두 ‘曠瀾의 美’ 또는 ‘深奧의 美’를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각각 나름대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어디에나 호수나 시내는 있지만 같은 호수나 시내가 아니며, 어디에나 초목과 바위가 있지만 같은 초목과 바위가 아니다. 柳宗元은 지역과 형상에 따라 이들 경관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그 서로 다른 모습을 확연하게 묘사함으로써 예술적 표현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 속에는 온통 조그만 돌맹이인데, 黃神祠 위쪽까지 평평하게 널려 있다. 옷을 걷어부치고 80보쯤 가면 첫번째 연못에 닿는데, 가장 뛰어나고

13) 卷 29, 「鈞鍋潭記」: “鈞鍋潭, 在西山西。其始蓋再水自南奔注, 抵山石, 屈折東流。其顛委勢峻, 盪擊益暴, 齧其涯, 故旁廣而中深。舉至石乃止, 流沫成輪。然後徐行, 其清而平者, 且十畝餘, 有樹環焉, 有泉懸焉。”

14) 앞과 같음: “孰使予樂居夷而忘故土者, 非茲潭也歟?”

아름다워 거의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략 말하자면 마치 큰 항아리를 갈라서 천 자 높기로 양 옆에 세워놓은 것 같다. 그 안에 시냇물이 고였는데, 눈썹먹을 푼 듯 짙푸르고 깊어, 흘러올 뻔 마치 하얀 무지개같던 것이 깊고 잠잠하여 소리가 없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한창 돌 아래로 모여들고 있다¹⁵¹.

黃溪의 경관을 이루는 불과 양 옆의 암벽 그리고 물 속의 돌과 물고기에 대한 묘사이다. 시내 양쪽의 암벽이 큰 항아리를 갈라서 벌려놓은 듯한 모양으로 가파르게 서 있다는 비유적인 묘사, 그 사이를 흐르는 시내의 바닥에는 자그마한 돌맹이가 깔려 있다는 사실적인 묘사, 시냇물이 많고 깊음을 ‘눈썹먹을 쌓아놓은 듯 고약으로 물을 붙인 듯 흐르는 것이 마치 하얀 무지개같고 깊고 잠잠하여 소리가 없다’고 한 시각과 청각의 효과를 사용한 생동적인 표현 등이 어우러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한창 바위 아래로 모여드는 동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물이 맑고 깊은 정도를 실감있게 전해준다.

대나무를 쳐서 길을 내니 아래에 작은 연못이 드러났는데, 물이 아주 맑고 시렸다. 바닥이 온통 하나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가 가까이 이르면 바위로 된 바닥이 말려 올라와 지석을 이루고 섬돌을 이루며 울퉁불퉁 들쭉날쭉했다. 푸른 나무 비취빛 덩굴이 얽히고 설켜 잎바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들쭉날쭉 춤을 췄다. 연못 속에는 물고기가 백여 마리 될 듯 한데, 모두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허공에서 노니는 듯 하고, 햇빛이 아래로 비치자 그림자가 바위로 된 바닥에 비쳐어 힘차게 멀리 가버리는 듯 하다가는 어느덧 함께 어우러져 오락가락 하는 것이 마치 이 유람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듯하다¹⁶¹.

묘사하는 대상은 주로 물·바위·물고기 등으로, 「游黃溪記」와 거의 마찬가지로 그 특성은 전혀 다르다. 특히 ‘연못 속에는 물고기

-
- 15) 卷 29, 「游黃溪記」: “水之中皆小石, 平布黃神之上. 揭水八十步, 至初潭, 最奇麗, 殆不可狀. 其略若剖大甕, 側立千尺. 溪水積焉, 黛蓄膏滯, 來若白虹, 沈沈無聲. 有魚數百尾, 方來會石下.”
- 16) 卷 29, 「至小丘西小石潭記」: “伐竹取道, 下見小潭, 水尤清冽. 全石以爲底, 近岸卷石底以出, 爲址爲嶼, 爲嵒爲巖. 青樹翠蔓, 蒙絡搖綴, 參差披拂. 潭中魚可百許頭, 皆若空遊無所依, 日光下澈, 影布石上, 矚爾遠逝, 往來翕忽, 似與游者相樂.”

가 백여 마리 될 듯 한데, 모두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허공에서 노니는 듯 하고, 햇빛이 아래로 비치자 그림자가 바위로 된 바닥에 비치어 힘차게 멀리 가버리는 듯 하다가는 어느덧 함께 어우러져 오락가락 하는 것이 마치 이 유람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듯하다'는 표현은 물고기의 동적인 모습을 통하여 연못의 고요한 모습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游黃溪記」에서 묘사된 黃溪는 세차게 굽이쳐 양안의 바위를 깎으면서 흘러내려 깊고 평온하게 모이는 반면에 「至小丘西小石潭記」에서 묘사된 小石潭은 바닥의 바위가 들쭉날쭉 갖가지 지형을 이루고 여기에 담긴 그다지 깊지 않은 물은 너무도 투명하여 안에 있는 물고기가 허공에서 노니는 듯하다. 물의 흐름·모양·깊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갖가지 모습을 특색있게 그려냈다. 柳宗元 游記의 문장 하나하나가 古來로 奇句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각각 적절하고 실감있는 표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袁家의) 물길은 위로 南館·高嶺과 만나고 아래로는 온갖 여울과 이어지며, 중간에는 모래섬이 연달아 있고 작은 시내가 흐르는데, 맑은 연못과 얇은 물가가 사이사이 구비구비 이어지며, 물살이 고요한 곳은 짙은 먹빛이고 세찬 곳은 흰 거품이 끊어올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물길이 끝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끝없이 이어진다¹⁷⁾.

위의 두 예문이 어느 한 지점에서 물을 관찰하여 묘사한 것이라면 이 예문은 袁家渴의 물길을 따라 움직이며 관찰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 위로는 남관 고장과 만나고 아래로는 온갖 여울과 만나면서, 얇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袁家渴의 모습이 눈 앞에 그려지듯 선하게 떠오른다. 여기서도 물살이 없이 평온한 곳은 짙은 먹빛이고 물살이 거센 곳은 하얀 거품이 끊어오르듯 한다는 표현이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물이 끝난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끝없는 물길이 나타난다는 표현 등은 袁家渴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표현한 奇句이다.

17) 卷 29, 「袁家渴記」: “渴上與南館高嶺合, 下與百家瀨合, 其中重洲小溪, 澄潭淺渚, 間闕曲折, 平者深墨, 峻者沸白, 舟行若窮, 忽又無際。”

바위가 온통 바닥을 이루어 양쪽 물가에 이르면서 상 모양도 있고 집 모양도 있고 잔치를 벌여놓은 형상도 있고 문지방으로 막아놓은 것같은 형상도 있다. 그 위에 물이 평탄하게 펼쳐져서, 흐르는 물결은 옷감의 무늬인 듯 졸졸졸 소리는 비파를 연주하듯, 옷을 건어부치고 맨발로 가며 대나무를 꺾고 쌓인 목은 잎사귀를 쓸고 썩은 나무를 밀쳐내면 의자 열여남은 개를 벌려놓고 앉을 만한데, 얽히고 설켜어 흐르는 물과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가 모두 의자 밑에 있고, 비취빛 깃털을 단 나무와 용의 비늘같은 바위가 그 위에서 그늘을 드리운다¹⁸⁾.

「石澗記」에서 묘사한 물과 바위는 어딘지 모르게 평온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이는 바위의 모습이 ‘床’ 같기도 하고 ‘堂’ 같기도 하다거나, 물이 바위 위에 평평하게 펼쳐져서 그 물살이 마치 옷감의 무늬 같다거나, 물소리가 비파를 연주하는 것 같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에서 비유하는 사물이 일상 생활 용품이거나 악기여서 친근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경관이 지나치게 조용하고 물이 지나치게 맑아서 凄然한 느낌마저 들어서 오래 있지 못했다고 하는 「至小丘西小石澗記」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듯 경관의 서로 다른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여 생동감있게 묘사한 점이 柳宗元의 游記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예술성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吳文治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작품은 풍부하고 아름답되 정밀하고 기발하여 우리가 읽으면 중복되었거나 군더더기라고 느껴지는 곳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柳宗元이 여러 각도에서 정밀한 관찰을 시도하여 山水의 특징을 잡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대상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상의 변화 중에서 또는 대상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중에서 또는 대상과 주위景物과의 관계 중에서 대상의 전체적인 특징과 구체적인 특징을 잡아내어 간결하고 세련되게 개괄함으로써 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의 숨소리를 생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냈다¹⁹⁾.

‘대상의 전체적인 특징 및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기법은 柳宗元의 游記가 표현력과 예술미에 있어서 극찬

18) 卷 29, 「石澗記」: “互石爲底, 達于兩涯, 若床若堂, 若陳筵席, 若限闔奧. 水平布其上, 流若織文, 響若操琴, 揭跳而往, 折竹掃陳葉, 排腐木, 可羅胡床十八九居之, 交絡之流, 觸激之音, 皆在床下, 翠羽之木, 龍鱗之石, 均蔭其上.”

19) 吳文治, 「柳宗元評傳」, 161쪽.

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시내나 연못의 서로 다른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여 묘사한 것처럼 산이나 바위를 중점적으로 묘사한 부분에서도 그런 예술적인 성취는 찾아볼 수 있다.

黃神祠 위쪽으로 두 산이 담장처럼 서 있어, 벼랑에 단청으로 수를 놓은 듯 꽃과 잎이 나란히 피어나 산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널려 있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가파른 벼랑이요 바위 동굴이라²⁰⁾.

황신사 주위를 둘러싼 산과 벼랑·초목·동굴 등의 모습을 회화적인 수법으로 그리고 있다. ‘벼랑에 단청으로 수를 놓은 듯 꽃과 잎이 나란히 피어나 산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널려 있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가파른 벼랑이요 바위 동굴’이라는 표현은 그 회화적 표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바위가 갑자기 노한 듯 들쭉날쭉 흠을 밀치고 나와 저마다 제 멋진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거의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울퉁불퉁 서로 연이어 내려온 것은 마치 소와 말이 시내에서 물을 마시는 것 같고, 돌진하듯 각축하며 올라간 것은 마치 큰곰 작은곰이 산을 오르는 것 같다²¹⁾.

여기서는 바위가 생명력을 얻은 듯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처음부터 ‘갑자기 노한 듯 들쭉날쭉 흠을 밀치고 나와 저마다 제 멋진 모양을 자랑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소와 말이 시내에서 물을 마시는 것 같다’거나 ‘큰곰 작은곰이 산을 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적이고 가라앉은 분위기와는 다른 동적이고 활기에 찬 모습을 실감하게 한다.

柳宗元의 游記가 호평받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면서 단순한 사실의 묘사나 전달의 수준을 넘어 뛰어난 표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또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경우 지니기 쉬운 무미건조함을 없애고 생동감과 현장성을 보이면서 아울러 마치 한 폭의 풍경화나 수채화같은 감동을 전달해줌으로써 그야말로 詩情畫意가 깃든 산문을 창작한 것이다.

20) 卷 29, 「游黃溪記」: “祠之上兩山牆立, 如丹碧之華葉駢植, 與山升降, 其缺者爲崖峭巖窟.”

21) 卷 29, 「鈇錡潭西小丘記」: “其石之突怒偃蹇負土而出爭爲奇狀者, 殆不可數. 其山巖然相累而下者, 若牛馬之飲于溪; 其衝然角列而上者, 若熊羆之登于山.”

조금 있자 주위가 아주 밝아져서 보니 내가 있던 곳이 上室이요, 上室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 바위구멍이 나와 북쪽으로 나오니 눈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지고 날으는 새는 모두 등을 보이고 있다²²⁾.

柳州에서 유람할 만한 경관을 찾아다니던 후 기록한 이 서술의 앞 부분은 어느 바위 동굴을 찾아 들어가 여기저기를 한참 동안 탐사하는 과정이다. 동굴 탐사를 끝내고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오면서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날으는 새가 모두 등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고래로 보는 이의 무릎을 치게 하는 奇句이다. 평범한 고도에서 동굴을 탐사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다른 출구로 나오게 된 정황을 날아가는 새가 모두 등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동굴의 규모와 굴곡 또는 산의 높이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石渠記」에서 물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눈에 들어오는 광경을 묘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袁家澗에서 서남쪽으로 백 보를 채 못가서 돌로 독을 쌓은 물길을 찾았다. 그 위에 주민들이 다리를 놓았고 고요하게 샘물이 솟는데, 물소리가 커졌다 하면 작아지고 작아졌다 하면 커졌다. 물길의 넓이는 어떤 곳은 여덟 치요 어떤 곳은 두 자인데, 길이는 열 걸음 남짓이라. 물이 흘러 큰 돌을 만나면 그 아래로 기어나와 돌을 지나 흐르는데, 어떤 돌은 움푹 패여 물이 고인 곳에는 창모가 덮여 있고 파란 이끼가 둥글게 둘러섰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흘러 걸음으로는 바위 아래를 깎으면서 북쪽으로 작은 연못에 떨어진다. 연못의 둘레는 백 자가 채 안되는데, 맑고 깊어서 피라미가 많이 있다. 다시 북쪽으로 구비구비 돌아가서 언뜻 보니 끝이 없을 것 같았거늘 마침내 袁家澗로 흘러든다. 양 옆은 모두 신기한 돌과 나무 아름다운 꽃과 대나무여서 둘러앉아 그늘을 쏘일 수도 있고, 바람이 산머리를 흔들 때면 그 울림이 골짜기에 울려 눈에 보이는 건 조용한데 들리는 소리는 멀리서 전해온 것이라²³⁾.

袁家澗을 지나 다시 石渠라는 물길의 빼어난 경관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마치 관광 안내도인양 방위와 거리까지 밝히면서 써내려갔다. 石渠를 둘러싼 경관을 이루는 요소 즉 샘·물길의 너비·물살의

22) 卷 29, 「柳州山水近治可游者記」: “巴而大明, 爲上室, 由上室而上, 有穴, 北出之, 乃臨大野, 飛鳥皆視其背.”

흐름·암석·연못·물고기·나무 심지어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빠트리지 않고 포착하여 묘사하면서 아울러 소리의 강약·모양의 특성 등 시각적·청각적 요소까지 겸비하여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그 소리를 듣는 듯하다.

3. ‘情’과 ‘景’의 융합

柳宗元이 永州에서 생활하면서 名勝山水를 찾아다니게 된 동기는 그의 游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始得西山宴游記」는 柳宗元이 남긴 전체 游記의 서문 격이다. 그 첫머리에서 柳宗元이 名勝山水를 찾아다니게 된 동기를 미루어 볼 수 있다.

내가 죄인이 되어 이 永州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가 틈이 나면 유유히 거닐면서 천천히 노니는데, 동행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깊은 숲에 들어가서 구비구비 골짜기 깊은 숲의 웅달샘 기암괴석 등을 있는대로 찾아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곳에 이르면 풀을 헤치고 앉아 술잔을 기울여 취하고, 취하면 서로 배개삼아 눕고, 누우면 꿈을 꾸고, 서로 마음이 흡족하면 꿈에서도 같이 즐기고, 깨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永州에 있는 山水 중에 유별난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내가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껏 西山이 유달리 뛰어나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²³⁾.

永州에 머무르게 되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山水를 유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경관이 마음에 드는 곳에 이르면 동행한 사람들과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서로를 배개삼아 베고 누워 꿈을 꾸면서까지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柳宗元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애초에 山水를 유람하기 시작한 것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의 游記 중 경관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시시각각 달랐던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23) 卷 29, 「石渠記」: “自渴西南行不能百步, 得石渠。民橋其上, 有泉幽幽然, 其鳴乍大乍細。渠之廣或咫尺, 或倍尺, 其長可十許步。其流抵大石, 伏出其下, 踰石而往, 有石泓昌蒲被之, 青鮮環周。又折西行, 旁陷巖石下, 北墮小潭。潭幅員減百尺, 清深多孑魚。又北曲行紆餘, 睨若無窮, 然卒入于渴。其側皆詭石怪木奇卉美箭, 可列坐而享焉, 風搖其枝, 韻動崖谷, 視之既靜, 其聽始遠。”

悠悠하게 顛氣와 함께 하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洋洋히 造物主와 함께 노닐되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 잔을 당겨 술을 가득 채워 마음껏 취하니, 해가 들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슴푸레하게 땅거미가 멀리서 다가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나지 않고, 마음이 영기고 형체가 녹아서 만물의 조화와 하나로 합한다²⁴⁾.

1절에서 인용했듯이, ‘曠灑의 美’를 찾는 과정에서 西山의 정상에 올라 한결같이 탁 트인 사방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회를 서술한 부분이다. ‘悠悠하게 顛氣와 함께 하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洋洋히 造物主와 함께 노닐되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이런 경지는 호연지기를 키워 억울하고 고통스런 현실 생활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 후반부의 ‘술에 흠뻑 취하여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멀리서 땅거미가 밀려와 어둑어둑해져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보면 柳宗元의 시름과 고뇌가 산의 정상에 오른 일시적인 호연지기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관 묘사의 이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감정의 노출은 永州라는 궁벽한 지방의 궁벽한 외곽에 위치한 산천 경계가 지닌 아름다움의 이면에 어딘지 모르게 凄然한 모습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못가에 앉아 있으면 대나무가 사방으로 둥글게 둘러서 있고 적막하고 인적이 없어, 마음이 스산하고 한기가 뼈까지 스며 쓸쓸하고 고요하여 그 정경이 지나치게 맑아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記를 쓰고 떠났다²⁵⁾.

小石潭의 여러가지 특색, 즉 草木·水石·물고기 등의 모습이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경관을 제공해준다. 그

- 24) 卷 29, 「始得西山宴游記」: “自余爲僇人, 居是州, 恒惴惴. 其隙也, 則施施而行, 漫漫而游, 日與其徒, 上高山, 入深林, 窮翹翹幽泉怪石, 無遠不到. 到則披草而坐, 傾壺而醉, 醉則更相枕以臥, 臥而夢, 意有所極, 夢亦同趣, 覺而起, 起而歸, 以爲凡是州之山水有異態者, 皆我有也, 而未始知西山之怪特.”
- 25) 앞과 같음: “悠悠乎與顛氣俱, 而莫得其涯, 洋洋乎與造物者遊, 而不知其所窮. 引觴滿酌, 頽然就醉, 不知日之入, 蒼然暮色, 自遠而至, 至無所見, 而猶不欲歸, 心凝形釋, 與萬化冥合.”
- 26) 卷 29, 「至小丘西小石潭記」: “坐潭上四面, 竹樹環合, 寂寥無人, 凄神寒骨, 峭愴幽邃, 以其境過清, 不可久居, 乃記之而去.”

러나 小石潭의 주위에는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 ‘대나무가 사방으로 둥글게 둘러서 있고 적막하고 인적이 없어 마음이 스산하고 한기가 뼈까지 스며드는’ 것이 그것으로, 여기서 柳宗元은 지나치게 맑은 느낌이 들어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한 경관의 묘사이다. 柳宗元은 감정을 서술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하여 경관의 모습은 더욱 사실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小石潭 주위의 경관이 스산한 느낌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맑은 것은 실제 小石潭이 그랬을 수도 있고 당시 柳宗元의 심경이 그랬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경관이 완전히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柳宗元이 묘사한 永州·柳州의 山水는 지리적 위치는 모두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小石潭만이 위와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묘사는 永州 山水의 궁벽함이 柳宗元의 고독감을 대신하여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柳宗元이 永州의 山水를 자신의 처지와 같게 인식했다는 사실은 「愚溪詩序」 및 기타 몇몇 游記의 말미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柳宗元이 山水를 인식하는 이런 방법은 山水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山水의 외형만을 서술하는 무미건조한 필법을 탈피하고 있다. 이런 서술 방법 역시 柳宗元의 游記의 예술성이 이룩한 독특한 성취의 일면이다.

4. 청각적 표현의 효과

柳宗元의 游記가 다른 산문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청각 즉 소리를 통하여 사실적인 묘사와 감각적인 표현의 효과를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이제까지 살펴본 인용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소리를 사실대로 전해줌으로써 山水의 모습은 더욱 사실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며, 서로 다른 소리를 통하여 山水의 서로 다른 특징은 더욱 분명하게 전달된다.

대나무를 사이에 두고 물소리가 들리는데 패옥 가락지가 울리는 듯하다

27).

27) 卷 29, 「至小丘西小石潭記」: “隔篁竹, 聞水聲, 如鳴環環.”

28) 卷 29, 「石澗記」: “水平布其上, 流若織文, 響若操琴 ……”

29) 卷 29, 「柳州山水近治可游者記」: “泉大類鞞雷鳴.”

그 위에 물이 평탄하게 펼쳐져서, 흐르는 물결은 옷감의 무늬인 듯, 졸졸 소리는 비파를 연주하듯……³⁰⁾

샘이 커서 물소리가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다³¹⁾.

소리를 다른 어느 것에 비유한 것들이다. 小石潭으로 흘러드는 시내의 물소리는 패옥이 울리듯 맑고 고요하다. 여기서 패옥의 이미지는 뒤에 柳宗元이 서술한 너무 맑고 서늘하여 오래 머물고 있지 못할 정도의 小石潭의 분위기를 앞서 암시하고 있다. 石澗의 물은 그 흐르는 소리가 비파를 연주하는 소리와 같아서 흐르는 물결이 옷감에 무늬를 짜는 듯 하다는 비유와 더불어 바위로 된 바닥 위를 평온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는 느낌도 포근하게 전해준다. 반면에 靈泉은 그 규모가 커서 샘물이 흐르는 소리가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와 같다. 이들 세 예문은 소리만을 통해서도 묘사하는 山水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소리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소리의 묘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몇 리 가면 땅은 모두 마찬가지이되 나무는 더욱 무성하고 바위는 더욱 수척하며 물소리는 항상 찰랑찰랑 울린다³⁰⁾.

높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서 연못으로 떨어지게 하니 뽕뽕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³¹⁾.

그 옆에 보루가 나타났다. 문같은 것이 있어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째깍하다. 돌맹이를 하나 던지니 뽕뽕 물소리가 나는데 그 울림이 우렁차서 한참 후에야 그쳤다³²⁾.

의성어의 효과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의성어를 완전히 동일하게 글로 옮기거나 특히 우리 말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맑고 차가운 형상은 눈과 함께 어우러지고 졸졸 흐르는 소리는 귀와 함께 어우러진다³³⁾.

30) 卷 29, 「游黃溪記」: “自是又南數里, 地皆一狀, 樹益壯, 石益瘦, 水鳴皆鏘然.”

31) 卷 29, 「鈇錡潭記」: “行其泉於高者, 而鑿之潭, 有聲鏘然.”

32) 卷 29, 「小石城山記」: “其旁出堡塢, 有若門焉, 窺之正黑. 投以小石, 洞然有水聲, 其響之激越, 良久乃已.”

이것은 ‘맑고 차가운 형상’과 ‘졸졸 흐르는 소리’가 柳宗元의 눈과 귀와 교감하는 모습이다. ‘맑고 차가운 형상’과 ‘졸졸 흐르는 소리’는 앞서 찾은 嘉木·美竹·高山·浮雲·溪水·鳥獸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모습이며 柳宗元의 눈과 귀는 이들과 교감함으로써 이후 정신적인 평온의 상태를 얻게 되는 것이다. 山水는 그 형상 뿐만 아니라 소리에 의해서도 편안함과 해탈감을 가져다준다.

바람이 산머리를 흔들어대면 그 울림이 골짜기에 울려 눈에 보이는 건조융한데 들리는 소리는 멀리서 전해온 것이라³⁴⁾.

구비구비 이어진 바위 계곡이 그 정적인 모습의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주위를 맴도는 바람 소리의 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바람 소리가 웅웅 계곡을 울려서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고요한 바위 계곡 뿐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詩的인 경지이다. 이와 같이 소리의 묘사는 단순히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리를 통하여 경관의 배경이나 분위기를 효과있게 전달한다.

5. 寓 意

永貞의 혁신 정치가 실패한 이후 柳宗元이 받았던 유형 무형의 압박과 정신적 고통은 「寄許京兆孟容書」³⁵⁾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고통을 달래기 위하여 부근의 山水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룩한 游記가 창작되었다³⁶⁾. 그러나 이 점만을 중시한다면 자칫 游記의 창작 작업이 柳宗元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하여 山水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山水를 만나 예술적인 기교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표현하려 했다는 편중된 시각을 가질 우려

33) 卷 29, 「蝸蟻潭西小丘記」: “清冷之狀與目謀, 嶻嶭之聲與耳謀.”

34) 卷 29, 「石渠記」: “風搖其巖, 韻動崖谷, 視之既靜, 其聽始遠.”

35) 卷 30.

36) 이 과정은 「始得西山宴游記」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7) 卷 24, 「愚溪詩序」: “余雖不合於俗, 亦頗以文墨自慰, 漱滌萬物, 牢籠百態, 而無所避之.”

가 있다. 다시 말하면 柳宗元이 游記를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대상의 아름다움만이였을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柳宗元의 游記를 대할 때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 뛰어난 예술성 이외의 것을 寓意的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비록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한 저술 활동으로 자못 스스로를 위로하여 만물을 씻어내고 온갖 세태를 끌어모아 피하는 바가 없다³⁷⁾.

이는 어쩌면 생전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기록으로나마 남겨서 후세에 누군가가 진정한 평가를 해주기 바라는 중국의 전통적 지식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柳宗元 자신이 游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愚溪詩序」이다. 시내가 지닌 아름다운 경관과 관개 수로로서의 실용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柳宗元은 '愚溪'라고 명명했다. 이는 전적으로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경륜과 포부를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기탁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愚溪'도 역시 柳宗元이 永州 지방의 山水를 찾아다니다 발견한 뛰어난 산천 경개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기타 游記의 대상 역시 단순한 위안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아! 이 언덕이 이토록 훌륭한 경관을 갖추었으니 이를 풍·竊·호·杜 지방에만 갖다놓아도 유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사려고 하여 하루만에 천 금을 더 없어도 살 수가 없겠거늘, 지금 이 永州에 버려져서 농부·어부들도 지나가면서 우습게 보고 사백 금에 내놓아도 몇 해가 지나도록 팔리지 않다가 나와 深源·克己만이 좋아하여 사들였으니 이는 과연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 것이로다! 들에 이 내용을 새겨 이 언덕이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 것을 축하하노라³⁸⁾.

鈞鉞潭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小丘)'이 永州라는 궁벽한 지방에

38) 卷 29, 「鈞鉞潭西小丘記」: “噫! 以茲丘之勝, 致之竊杜, 則貴游之士爭買者, 日增千金而愈不可得, 今棄是州也, 農夫漁父過而陋之, 賈四百, 連歲不能售, 而我與深源克己獨喜得之, 是其果有遭乎! 書於石, 所以賀茲丘之遭也.”

버려짐으로써 농부나 어부가 지나가면서 우습게 보고 사백 냥에 값을 매겨도 몇 해 동안 팔리지 않지만, 이 작은 언덕이 長安 근처의 대도시에 있다면 날이 갈수록 천 냥을 더 없어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서술은 단순한 사실의 서술이 아니다. 이는 역으로 長安 근처의 대도시에서는 수천 냥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빼어난 경관이 永州에 있으며, 더구나 이 경관이 永州에서는 사백 냥에도 몇 해 동안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이 鈿銅潭 서쪽의 작은 언덕이 무엇에 대비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經世濟民의 경륜을 닦아 위민 정치의 포부를 실현하려다가 도리어 배척당하고 실움받는 柳宗元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小石城山記」에서의 다음과 같은 자술도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 내가 조물주는 과연 있는가 없는가 회의한 지가 오래다. 여기 와보고 짐차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또한 이것을 수도 부근에 있게 하지 않고 이 夷狄의 땅에 있게 하여 몇천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재주를 써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이상했다. 이는 그야말로 공을 들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는 꼴이니 神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없는 것일까? 혹자는 “현명하되 이곳에 쫓겨와 욕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혹자는 “이 지방의 신통한 정기가 사람에게 내려져 위대한 사람을 낳게 하지 않고 이 사물에만 내려져 뛰어난 경관을 낳게 한 것이니, 그래서 楚 지방 남쪽에는 훌륭한 인물은 적고 뛰어난 경관은 많다”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³⁹⁾.

이상과 같이 柳宗元이 빼어난 경관을 발견하고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예술적인 표현력을 사용하여 묘사하면서 언뜻언뜻 서술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보면 游記의 대상은 단순한 미적 감동의 대상만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柳宗元이 游記를 창작한 동기가 다분히 참여적이었음을 특히 강조하는 학자가 清水茂이다. 清水茂는 柳宗元의 문학 특히 그가 永州로 貶謫된 이후의 문학은 그의 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겉으로 보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쓴 듯한 것도 실제로는

39) 卷 29, 「小石城山記」: “噫! 吾疑造物者之有無久矣。及是, 愈以爲誠有, 又怪其不爲之中州, 而列是夷狄, 更千百年不得一售其伎。是固勞而無用, 神者當不宜如是, 則其無乎? 或曰: ‘以慰夫賢而辱於此者。’ 或曰: ‘其氣之靈, 不爲偉人而獨爲是物, 故楚之南少人而多石。’ 是二者余未信之。”

그 자신에 대한 서술과 표현인 경우가 많으며, 당시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왕왕 曲折 隱蔽된 형태로 표현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점을 중시하여 清水茂는 柳宗元이 창작한 游記는 반항과 고발의 또 다른 형태라고까지 주장한다.

……‘永州八記’ 또는 「愚溪詩序」·「愚溪對」 등 山水를 묘사한 산문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작품을 그의 생활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들 작품이 결코 단순히 자연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당한 처지에 대한 끝없는 분개와 충만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永州로 쫓겨난 이후의 문학은 간접적인 반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柳宗元이 山水記를 쓰게 된 동기는 政敵들의 감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대상에 강제로 그의 분노 비애 억울 등의 심정을 옮겨놓으려 한 것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永州的 山水가 부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것은 바로 柳宗元의 경우와 같아서, 이로 인하여 그는 특별히 永州的 山水를 위하여 記를 지은 것이다.

柳宗元의 山水記는 버림받은 토지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며 이는 그의 傳記 문학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또한 柳宗元 자신도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학도 그의 생활 체험의 반영이며 일종의 강렬한 향의이다. 버림받은 山水의 아름다움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도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존재, 다시 말하면 柳宗元 자신의 아름다움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적극적인 향의와 함께 그 반면으로는 자기의 고독감에 의하여 이런 그의 생애와 아주 유사한 버림받은 山水에 특별한 친밀감을 품고 이런 아름다움 가운데 어떤 안위의 느낌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清水茂는 柳宗元의 游記조차 寓言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비판과 풍자의 연속이며 다만 기법에 있어서 다른 기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반대로 吳文治는 游記를 창작한 동기와 관련하여 柳宗元이 山水를 대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柳宗元은 山水를 묘사할 때 조국의 아름다운 山水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놀라운 기쁨·찾고자하는 감정 등을 충분히 드러냈다. 그는 이들 감정을 자기의 예술적 수완을 통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결합해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山水 소품을 읽을 때에도 일종의 뜨거운 사랑·놀라운 기쁨·찾고자 하는 감정 등이 일어날 수 있다. 柳宗元은 경치에 대한 자기의 느

짐을 서정시의 “나”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썼다. 이렇게 씀으로 인하여 확실히 조국의 아름다운 山水에 대한 작자의 환희고무·찬탄음미의 사상 감정을 한층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吳文治는 游記를 통하여 국토에 대한 柳宗元의 사랑과 회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山水를 간접적인 반향과 향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까지 주장하는 清水茂의 견해와 너무나 대조를 이룬다.

柳宗元이 정신적 위안을 찾기 위해서 또는 새로 발견한 아름다운 국토에 대한 사랑과 회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游記를 창작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체념적 동기론’이라 한다면 清水茂의 입장은 그와는 전혀 상반된 ‘참여적 동기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자는 모두 너무 한쪽만을 강조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념적 동기론’은 柳宗元이 永貞의 정치 혁신에 참여했던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솟아나오는 후회와 반성 나아가서는 고통과 번민의 감정을 씻기 위하여 山水를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자칫 柳宗元이 한때의 열정으로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게 될 행동을 어느 정도는 무책임하게 저질렀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즉 뚜렷한 믿음과 냉철한 이성이 부족한 부화뇌동하는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柳宗元은 비록 貶謫은 당했을지언정 그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그의 행위가 착오였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도시에서는 수천 냥의 값어치가 나갈 빼어난 경관이 永州에서는 사백 냥에도 무대접받고 있다는 비유에서도 그의 신념과 기개는 꺾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끝까지 정치 혁신에 참여했던 자신의 결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游記의 창작을 국토에 대한 사랑이니 조국애니 하는 관점에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위와 같은 ‘체념적 동기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참여적 동기론’은 큰 몫을 했다. 즉 柳宗元의 창작 활동 전체를 일관된 시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는 점은 타당한 것이다. 또한 ‘참여적 동기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柳宗元의 본인의 언급이 游記의 본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寓言’이나 ‘論說’에서는 현실 정치에 대한 柳宗元의 적극적인 개혁과 비판의 소망이 표면적으

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游記’에서는 그 점만을 강조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柳宗元의 游記는 독특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동기에 대한 논의가 양 극단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游記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결국 ‘체념적 동기론’은 游記 자체의 예술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柳宗元의 전체 창작 활동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소홀히 한 것이며, ‘참여적 동기론’은 游記의 주변적인 요소인 창작 동기나 배경에 중점을 두어 전체 창작 활동과의 연관만을 강조한 나머지 游記가 지닌 독특한 예술적 풍격을 소홀히 한 것이다.

물론 柳宗元의 游記에서 볼 수 있는 창작 정신은 ‘傳’을 비롯한 寓言體 작품의 창작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곽탁타·宋淸·楊潛·區寄 등은 모두 사대부가 멸시하는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언행은 도리어 사대부보다 훨씬 뛰어남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버림받은 인물의 가치를 인식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숨어 있으며, 그의 游記도 은폐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 가치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柳宗元이 묘사한 아름다운 경관은 저절로 柳宗元의 눈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덩불과 잡초를 제거하고 때로는 험한 산을 오르는 등 그것을 찾는 끊임없는 작업을 통하여 발견한 것들이다. 따라서 柳宗元의 游記가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 즉 山水를 통하여 얻은 미적 감동을 화평한 심기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면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도 그의 유배 생활로 인하여 얻은 감개를 기탁하고 있으며 자기 생활의 정당성을 암암리에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이는 그가 「愚溪詩序」에서 말한대로 “만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그 다양한 모습을 문장에 담는” 창작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다른 문체에서는 볼 수 없는 고도의 예술성을 실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경치를 묘사한 것이되 감정이 깃들여 있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되 언어가 아름답다는 것이 柳宗元의 游記의 특성이며, 이것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호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IV. 결 론

柳宗元의 游記를 문학적 성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柳宗元은 永州司馬로 貶謫된 이후 창작 활동에 전념했으며, 문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가치있는 작품은 대부분 이 ‘貶謫 시기’에 창작되었다. 이 점에서 游記도 예외는 아니다. 記라는 문체를 놓고 볼 때, 柳宗元은 ‘長安 시기’에 관청의 벽이나 문에 적는 형식의 記를 몇 편 지었지만 모두 어떤 수사적 기교나 예술적 표현을 살리지 않은 ‘기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貶謫 시기’에 永州와 柳州의 山水를 유람하면서 그 경관을 묘사하고 감회를 기탁하는 과정에서 游記라는 독특한 문체를 창작했다. 따라서 游記는 記의 일종으로 창작했지만 단순히 記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 내용은 뛰어난 묘사·情景의 융합·深遠한 寓意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柳宗元은 游記라는 문체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자칫 찬탄과 선전 일변도로 흐르기 쉬운 游記의 경향에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柳河東全集』, 臺北, 世界書局, 民國 64. 5.
 吳文治, 『柳宗元評傳』, 北京, 中華書局, 1962. 8.
 『柳宗元簡論』, 北京, 中華書局, 1979. 5.
 『柳宗元詩文集評』, 臺北, 明倫出版社, 民國 60. 10.
 高海夫, 『柳宗元散論』, 陝西, 人民出版社, 1985. 3.
 吳小林, 『柳宗元散文藝術』, 山西, 人民出版社, 1989. 10.
 劉光裕·楊慧文, 『柳宗元新傳』, 上海, 人民出版社, 1989. 10.
 金振邦, 『文章體裁辭典』,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6.
 朱世英·郭景春, 『唐宋八大家散文技法』,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89. 3.
 楊勝藤西 選編, 『中國當代游記選』(上&&下), 北京, 中國旅游出版社, 1982. 5.
 劉文獻, 『柳宗元的遊記』, 臺北, 文學雜誌, 6卷 3期, 民國 48. 5.
 徐善同, 『評柳宗元永州遊記』, 臺北, 中華文化復興月刊, 7卷 5期, 民國 63. 5.
 清水茂 著, 華山 譯, 『柳宗元的生活體驗及其山水記』, 中國古典散文研究論文集, 1959. 2.